

경영학 연구의 방향설정을 위한 방법론 및 패러다임의 탐구*

황호찬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회계학과 조교수
(hwanghc@sejong.ac.kr)

우리 나라에 경영학이 도입된 이래로 경영학은 학문 및 기업경영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진행되고 있는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경영학 연구의 현재 및 미래를 재조망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과학철학의 전반적인 추세를 검토하여 경영학 연구가 처해있는 현주소와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논의한다. 특히 실증주의에 따른 문제점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앞으로의 경영학 연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경영학 연구는 좀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여 폭넓은 연구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타 분야 연구와의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연구방법도 다양화하여 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기업환경의 변화를 예견하여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그에 알맞은 연구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1. 서 론

우리 나라에 경영학이 도입된 이래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경영학 연구는 기업사회 뿐 아니라 일반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최근 2-3년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 및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기존의 경영학 연구가 추구했던 방향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현재의 우리 나라 경영학 연구는 어디에 와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영학은 근본적으로 기업사회에 뿌리를 둔 학문이다. 따라서 기업을 떠나서는 경영학이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연구실 혹은 폐쇄된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비록 연구 자료들

은 시장이나 경영현장에서 수집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요인이나 인간 본연의 특성이 연구모델에서 제외되거나, 어려운 전문적 용어와 수학적 기호들로 표현되는 관계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그 결과 경영학 논문들은 교수나 박사과정 학생들의 서가에만 장식되었고 정작 기업인들로부터는 외면 당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우리나라의 경영학 연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야기한 몇 가지 요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의 경영학 연구의 대부분은 실증주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고 나머지 일부는 계량적 접근에 의한 모델설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이 경영학 발전에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많은 폐해도 초래하였다. 일부는 실증주의나 계량적 접근방법이 안고 있는 본원적인 한계점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고 다른 일부는 그러한 접근방법조차 잘못 이해하여 적용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예를 들어, 재무관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효율적시장가설¹⁾이나 Option Pricing Model의 문제점(Roll, 1977)이 지적되고 있으며, 마케팅의 Portfolio Model의 문제점(Lilien & Rangaswamy, 1998), 회계학에서의 실증이론에 대한 회의론(Arrington & Francis, 1989; Christensen, 1983)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경영학 연구대상의 협소함과 시각의 좁음을 들 수 있다. 기존 경영학 연구의 대부분이 나무를 분석하는 데에는 정교하였으나 숲을 보는 작업에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비록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요인을 모델에서 제외하고 특정 변수의 t값과 p-value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경영학 연구방법은 모델의 설명력을 현저하게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인접학문(예를 들어, 심리학, 사회학 등) 및 경영학내 타 분야와의 통합부재를 초래하여 단편적이거나 제한된 결과들을 산출하였다.

특히 미래에는 과거와는 달리 기업 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영학 연구가 지금과 같이 사후적인 처방만을 내리게 된다면 학문으로서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경영학 연구분야들을 몇 가지 예로 든다면, 통신 및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공간의 제약 요인이 상당부분 극복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며(카노크, 1996; 미국상무성, 1998; 브래드리 등, 1993; 마퀴드, 1994), 지식 및 정보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드리

커, 1993; 노나카 이쿠지로, 1998; Argyris & Schon, 1996). 또한 정형화된 시스템보다는 비정형화된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토플러, 1980; 밴드, 1996; 탭스콧과 캐스톤, 1996; 대비도우와 멀론, 1992), 형식보다는 가치와 관계가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와의 관계유지,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 측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Bagozzi, 1995; Mckenna, 1991; Hendriksen & Breda, 1992; 대비도우와 멀론, 1992; 애드빈슨과 멀론, 1996). 또한 개별 못지 않게 공동체가 강조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의한 공생의 경영, 리더십, 신뢰와 윤리의 경영, 지역사회 및 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일본 일류와 에너지 연구회, 1996; 후쿠야마, 1996; Nadler & Tushman, 1990).

결국 경영학 연구의 위기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점과,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여 타당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론상의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탐색하기 위해 첫째, 현대 과학철학의 흐름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경영학 연구가 과학철학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았으나 경영학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철학의 흐름을 탐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것은 현 경영학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은 과학철학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심도 있게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합리성, 이성, 가치중립 등을 표방하였던 모더니즘—경영학 연구의 근간이기도 한—이 가치의 해체(deconstruction)를 내세

1) 예일대학교 경제학자인 로버트 실러는 "경제사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오류는 효율적시장가설이다"라고 말한바 있다(The Wall Street Journal, 1987.10.23.p.13).

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쿤 (Kuhn, 1970)이 말하는 패러다임 전이 (paradigm shift)의 시작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의 경영학 연구는 과학철학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일반적 논의마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경영학 연구가 처해있는 현주소를 개관하고자 한다. 특히 경험주의, 이성주의 및 실증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현 경영학 연구방법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현대 과학철학의 경향과 경영학 연구의 문제점을 통합하여 우리나라 경영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패러다임을 탐구하고자 한다.

새로운 기업환경에 알맞은 경영학 연구방법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 그 변화의 속도가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모든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특정 연구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향이 틀릴 개연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 경영학 연구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기업경영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학 연구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II. 현대 과학철학의 흐름

20세기를 풍미했던 과학철학은 실존주의, 실증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 등으로 구분지을 수 있으나 (차머스, 1985; 라우든, 1997)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좁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작된 논리실

증주의를 검토한 후, 논리실증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연역적 접근을 제안하였던 포퍼를 중심으로 한 반증주의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과학의 집단성과 패러다임의 구조를 주장하였던 쿤을 중심으로 한 신과학철학의 흐름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아직 정립되었다 할 수는 없으나 근래에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논리실증주의

20세기 초반 비엔나에서 시작된 논리실증주의는 과학철학 및 학문연구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논리실증주의는 경험론, 관찰, 귀납적 방법, 객관주의, 합리주의, 가치중립성, 입증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경험론의 극단적 형태인 논리실증주의(혹은 논리 경험주의)는 과학적 지식은 관찰을 통한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며 귀납적인 논리분석에 의해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논리실증주의에 의하면 관찰은 관찰자의 편견이나 선입견, 이론이나 세계관과 상관없이 별도로 존재하며, 입증된 관찰은 귀납적 방법에 의해 이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론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 관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의 정도 (strength of confirmation)가 이론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귀납적 방법이란 "충분히 많은 수의 A가 다양한 조건의 변화 아래서 관찰되었고, 관찰된 A가 모두 예외 없이 B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A는 B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차머스, 1985, p.32). 또한, 논리실증주의는 인간은 이성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논리실증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가정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어

서 '스스로 증명되는 진리'(self-evident truths)이다.

그러나 논리실증주의의 근거를 제공하는 사실의 가치중립성(value-free),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 그리고 입증가능성에 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가치중립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바, 사실은 이론과 무관하게 존재한다고 논리실증주의는 주장하나 사실에 근거하기 위해서는 관찰에 의존하게 되며, 관찰은 다시 이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사실은 가치 혹은 이론적재적(value-laden)일 수 밖에 없다. 즉, 어떤 것을 관찰해야 한다는 이론이 없이 '관찰'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Toulmin, 1970). "관찰자가 보는 것, 곧 관찰자가 한 대상을 볼 때 가지게 되는 시각 경험은 과거에 그가 겪은 경험, 그의 지식, 그의 기대 등의 영향을 받는다"(차머스, 1985, p.59)는 실험결과처럼 사실의 관찰 및 해석은 이미 특정의 선입견이나 세계관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이성 및 합리성에 대한 가정도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인해 허구임이 드러났다. 나치즘에 의한 인간파괴는 인간은 더 이상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주었으며 실증주의가 추구하는 몰가치(value-free)가 가져다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귀납원리의 중요한 요소인 '다양한' 상황에서 '충분히 많은' 관찰의 모호성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즉, 얼마나 많은 관찰을 '충분히 많은 관찰'이라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좀 더 세련된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과학적 지식은 '증명된 지식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참인 지식'이라고 말하므로 논리실증주의의 기존 주장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귀납의 원리에 의하면 "귀납의 근

거가 되는 관찰사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찰이 행해진 조건의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과에서 도출된 일반화가 참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차머스, 1985, p.49). 그러나 이와 같이 기존 귀납주의의 주장이 일부 수정되었다 하여 귀납주의가 안고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관찰에 따르는 문제와, '제한된 관찰'에 의해 '제한이 없는 보편적 주장'을 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입증가능성과 관련된 논리 실증주의의 문제점은 반증주의자인 포퍼(Popper, 1968)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비판되었다. 포퍼는 관찰에 의한 자료는 단지 이론이 잘못되었거나 기각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증명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은 하얀색의 백조를 관찰한다 하여도 모든 백조가 하얗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단 한 마리 검은색의 백조는 모든 백조가 하얗다는 가설을 기각(disprove)하는데 충분하다. 즉, 이론에 합당한 많은 표본의 관찰이라 하더라도 가설을 검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나 이론과 불일치 하는 단 하나의 관찰이라도 그 이론이 잘못 되었음을 반증(falsify)하기에 충분하다.

결론적으로 위에 언급한 비판들이 논리실증주의를 결정적으로 폐기시키지는 않았지만 과학의 본질을 새롭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밝혀내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 라카토스(Lakatos)의 말처럼 "귀납주의는 퇴행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차머스, 1985, p.74).

2. 포퍼의 반증주의

포퍼의 반증주의는 먼저 입수된 증거들이 특정이

론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지의 입증정도에 의해 특정이론의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논리실증주의의 주장을 비판한다. 오히려 특정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므로 특정이론을 반증할 수 있는 사례가 더욱 중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포퍼에게 가설은 반증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반증가능성이 높을수록 좋은 가설이며, 결국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짓는 기준은 검증력이 아니라 반증력이다.

또한, 포퍼는 과학의 진보는 입증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장하고 대담한 추측을 장려하고 있다. 포퍼는 “비록 곧 거짓으로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대담한 추측을 제기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 좋아한다…… 우리들이 이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추측이 거짓임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 (차머스, 1985, p.84).

결국 포퍼의 반증주의는 추측과 반증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으며 반증가능성이 높은 이론은 그것이 실제로 반증되지 않는 한 반증가능성이 낮은 이론보다 더 좋은 이론이다. 예를 들어 ‘화성은 타원형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돈다’ 라는 법칙과 ‘모든 행성은 타원형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돈다’ 라는 법칙은 후자가 더 많은 주장을 담고 있으며 더 반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좋은 이론이다(차머스, 1985, p.83).

그러나 포퍼의 반증주의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반증’에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반증’에 따르는 논리적 문제, 그리고 반증주의의 주장과 다른 사례의 발견 등에

따른 것이다. 우선 특정 가설을 어떻게 반증할 수 있으며 얼마나 반증가능한가? 이것을 기술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반증주의자들은 정태적 차원보다는 과학의 진보라는 동태적 차원에서의 반증주의를 제안하였다. 즉, 기술적으로 특정가설을 반증하기는 어려우나 새로운 가설은 선행가설보다 반증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과학의 진보에 초점을 둔다면 두 이론의 비교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비교가 가능하려면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이 고안되어야 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반증주의는 참된 관찰이 주어지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 보편적 주장이 거짓임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반증할 수 있는 확고한 관찰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관찰이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고한 관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비록 확고한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도 그 주장을 폐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나타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검토해보더라도 특정이론과 모순되는 관찰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후에 좀 더 확고한 관찰에 의해 해당이론이 다시 지지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다.

결론적으로 반증주의는 논리실증주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였을 뿐 아니라 반증을 통하여 초기의 상황을 재검토하고 일반적인 법칙, 자료 및 테스트 상황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과학의 발전은 대담한 추측과 날카로운 반론에 의해서이지 가설을 입증한 것으로 되지 않음을 주장하므로 단순히 입증으로 만족하는 학문적 태도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반증을 하기 위

해서는 확고한 관찰을 필요로 하며, 기술적으로도 반증하기가 쉽지 않으며, 비록 반증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이론에 적합한 관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증주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쿤의 과학지식의 집단성, 사회성과 과학혁명의 구조

논리실증주의자들이 과학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모델과 법칙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그들 이후의 과학철학자들의 최대 관심은 과학의 진보와 개별학문분야에서의 역동성이었다(Caldwell, 1982, p.68). 이 중에서도 과학, 진리, 객관성, 합리성, 진보 등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개념으로 간주되었던 전통적인 과학철학(비엔나의 논리실증주의, 포퍼 등)과는 달리 쿤(Kuhn, 1970)에 의해서 시작된 신평학철학은 이러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거나 재해석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통념을 무너뜨리려 시도하였다(조인래 등, 1999, p.323). 쿤은 이론 선택의 기준은 불변적, 형식적이라는 논리실증주의와 과학은 진리를 향해 진보한다는 반증주의를 비판한다. 쿤에 의하면 과학의 진보는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혁명은 기존의 이론구조를 포기하고 이와는 양립 불가능한(incommensurable) 다른 이론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쿤은 물리학, 화학 등 어떤 학문이 되었든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인간이 숨을 쉬고 살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의심 없이 수용하는 일단의 가정을 공유하게 되는데 이것을 패러다임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특정 패러다임 아래에서는 소위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 수행되는데 이 정상과학에서는 연구분야와 연구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며 이에 의한 연구결과는 과학자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학자들은 필연적으로 난점에 부딪히거나 명백한 반증에 직면하게 된다. 만일 기존 패러다임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위기가 발생하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많아져 혁명에 성공하게 되면 새로 생성된 패러다임 아래에서 새로운 정상과학이 시작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과학은 정상과학-위기-혁명-새로운 정상과학-새로운 위기 등의 과정을 거쳐 진보해 나간다(차머스, 1985, p.150). 한편, 쿤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과학적 혁명은 단지 몇 개의 개념과 이론의 수정에 좌우되지 않으며 관련 분야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종의 세계관의 변화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학의 진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자 개인의 가치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과학자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가치나 규범이 특정 이론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학 및 역사적 탐구가 필수적이다(Caldwell, 1982, p.69). 이와 같은 견해는 Merton(1973)이나 Bloor(1976) 등에 의해 연구된 과학사회학과 맥을 같이 하는데 이에 의하면 과학적 지식 역시 다른 지식 체계와 마찬가지로 문화, 사회, 정치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이러한 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합리주의와 상대주의의 논쟁을 야기하였다. 전통적인 합리주의는 경합하고 있는 이론들의 상대적 장점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귀납주의자들은 이론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입증정도를 보편적 기준으로 설정하며, 반증주의자는 지금까지 반증되지 않은 이론의 반증가능성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상대주의는 보편적이며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

신, 어느 이론이 다른 이론보다 좋은가의 판단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달린 문제로 생각한다(차머스, 1985, p.170; 조인래 등, 1999, p.340).

그러나 이와 같은 쿤의 신과학철학은 몇 가지 점에서 비판되었다. 포퍼의 이론을 발전시킨 라카토스는 '공동체의 합의가 최상의 기준'이라는 쿤의 주장에 대해 만일 다수결에 의해 이론을 평가한다면 진리는 힘에 의존하게 되고 과학적 변화는 군중심리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들어 쿤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포퍼, 라카토스, 차머스 등 객관주의자들은 지식은 개인의 마음이나 머리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에 존재함을 들어 쿤을 비판하고 있다.

지금까지 논리실증주의, 포퍼, 쿤, 라카토스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조인래 등, 1999, p.381). 첫째, 과학적인 변화의 가장 중요한 단위는 규모가 크고 오래 지속되는 개념적 구조이며 이것은 패러다임, 연구 프로그램, 연구 전통 등으로 불린다. 둘째, 특정 이론이 일단 인정되면 단순히 경험적인 문제로 폐기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론에 반대되는 실험결과나 관찰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이론은 지속된다. 셋째, 자료가 이론 선택을 충분히 결정할 수는 없다. 즉, 관찰과 실험이 경험관계에 있는 이론들 사이의 선택을 결정하는 데 충분한 기초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넷째, 이론 중립적인 관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관찰은 이론적재적(theory-laden)이다. 다섯째, 후속 이론들이 선행 이론들이 성공적으로 설명한 것을 모두 포함하지는 못한다. 이론들의 대치 과정에서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다. 여섯째, 입증 이론이나 연역 논리는 이론의 평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4. 포스트모더니즘

20세기 중반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21세기에 가장 활발히 토론될 과학철학의 주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일 것임이 분명하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자명한 것으로 수용되었던 이성의 절대성, 과학의 확실성, 사실의 우위성 등에 대해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은 결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사고, 미적 체험 등을 설명하기에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보다 근원적인 일종의 초월론적 방법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내세웠다.

비록 아직까지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흐름 중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데리다(Derrida, 1978)의 '텍스트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구조주의 언어학, 푸코(Foucault, 1980)의 제보학적 작업, 폴라니(Polanyi, 1958)의 인격적 참여, 근대 과학적 방법은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고 이론과 실천을 분리함으로써 인간의 의미 체험과 역사와 현실 감각을 과학의 영역에서 모두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근대 과학이 제시하는 '보편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주장하는 가다머(강영안, 1996에서 재인용)의 해석학적 경험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중 본 연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합리성과 연구 방법에 관한 입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논리실증주의, 포퍼의 반증가능성, 그리고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등에서 당연히 여겨진 가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점에 비판적이다. 즉, 합리주의는 민족, 문화, 역사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나 방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비해 포스트모더니즘은 각기 다른 상황마다 각기 다른 이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개인적 경험, 감각, 주관적 판단 및 다양한 창조성이 요구됨을 강조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러한 태도는 “과학 내에서 모든 방법론적 강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고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고 반면에 더 넓은 맥락에서 개인이 과학이나 다른 형태의 지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자유”를 중요시하게 하였다 (차머스, 1985, p.227).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연구방법론은 들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성적, 반객관적인 해석(introspective, antiobjectivist interpretation)이고 다른 하나는 해체주의다(Rosenau, 1992, p. 118). 전자는 주로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을, 그리고 후자는 주로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을 담당한다. 이러한 방법론의 주요특징 중 하나는 기존의 관찰에 의한 방법론과는 달리 듣거나 말하거나 설화식(narrative)으로 진행되는 개별화된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자료의 관찰보다는 비전에 관심이 있으며 주체와 객체, 사실과 가치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실제와 불확실한 상황이 연출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한 연구방법이 다른 연구방법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거부한다(Rosenau, 1992, p.119). 결국 이러한 태도는 연구방법론에 관한 한 어떠한 방법론이던 적절하다(anything goes)는 주장을 가능케 했는데 파이어아벤트는 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과학이 고정적이고 보편적인 규칙에 따라 진행될 수 있고 또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이유는 인간의 재능과 그 재능의 발전을 진작시키고 야기시키는 환경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순한 견해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

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그 규칙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루면서 우리의 전문적인 자질을 증대시키려하기 때문이다... 모든 방법론은 그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은 어떻게 해도 좋다(anything goes)라는 것이다(차머스, 1985, p.215).

파이어아벤트는 이어서 “이론이 사회를 이해하고 그것을 좀더 깊은 수준에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피상적인 수준(시장조사,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을 조직하는 것이 과학의 이름으로 옹호되고 있는 사회이론의 영역에서는 특히 더 해롭다”(차머스, 1985, p.226)고 말함으로 느슨한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에는 지적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관점이 정당함을 외부에 확신시키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태도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즐길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이상은 아무 것도 아니다(Rosenau, 1992, p.137). 포스트모던적인 방법론으로는 서로 상충되는 해석을 선택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며, 결국 Krige의 말처럼 “어떻게 해도 좋다는 것은 실제로 모든 것이 정제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차머스, 1985, p.230에서 재인용).

〈표 1〉 「경영학 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방법론에 의한 구분(1989-1998)

연도	재무 관리		마케팅		인사 조직		생산 관리		회계학		재량 경영		경영 정보		국제 경영		경영 전략		기타		합계	
	실증	기타	실증	기타	실증	기타	실증	기타	실증	기타	실증	기타	실증	기타	실증	기타	실증	기타	실증	기타	실증	기타
1989	5		2		1		2		4				1		1		2		1		19	
1990	2		4		1	1	1		3				3				1	1			15	2
1991	8		3		2				6	1							2		1		22	1
1992	2		5	1	2	5	1		3				1		3		1		1		19	6
1993	4	1	7		4		1	1	2	1			1				3			1	22	4
1994	5	1	8	1	3		3		5	4	1		3		1	2	3	2	4	32	14	
1995	3		7		6		1		5	1			2		3	1	2		1		30	2
1996	6	3	10		6		1		2				3	1	2		4		2	1	36	5
1997	2		3	1	8	1	2		3	1		1	3				5	2	3	1	29	7
1998	5		5	1	6	2	1		4	3			2	3	3		4	1	2	1	32	11
소계	42	5	54	4	39	9	12	1	35	11	1	1	19	4	12	2	26	7	13	8	256	52
총계	47		58		48		13		46		2		23		14		33		21		308	
실증/총계 (%)	89.3		93.1		79.6		92.3		76.1		50.0		82.6		85.7		78.8		61.9		83.1	

III. 우리나라 경영학 연구의 문제점 및 패러다임의 탐구

경영학 연구가 현실성, 타당성 및 예측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와 미래 환경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분석 및 예측은 이를 가능케 하는 합당한 연구방법론이 전제될 때에나 가능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영학 연구의 문제점을 II장에서 논의된 과학철학의 관점에서 분

석한 후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는 과학철학이 경영학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우리나라 경영학 연구의 문제점

〈표 1〉은 지난 10년간 (1989 - 1998) 「경영학 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방법론에 의해 분류한 것이다 (Editorial, 1987)²⁾. 이에 의하면 전체 게재된 논문 중 83.1%가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연구이

2) 실증연구는 일반적 실증연구, 자본시장연구, 행위연구 및 조사연구를 포함한 것으로, 귀납적 방법에 의해 기업, 시장, 시스템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와 질문서나 면접에 의하여 태도나 인식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기타 연구는 연역적 연구, 모형연구, 역사연구 등을 의미한다 (권성국·조성표, 1997).

며 나머지 16.9%가 연역적 및 기타 연구로 심한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연구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경영학 연구는 결국 논리실증주의가 안고있는 모든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첫째, 귀납주의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경영학 연구의 전형적인 과정은 논리실증주의의 주장에 따라 관찰이나 자료를 취합한 다음 귀납적 방법에 의해 이를 이론화하고, 이렇게 하여 성립된 이론으로부터 연역적인 추론에 의해서 예측하게 된다. 경영학 연구가 타당성이 있기 위해서는 위의 각 과정마다 요구하는 전제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특히 연구결과가 절대적으로 진실이거나, 혹은 현재 경영학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 확실적인 진실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그 출발인 관찰이 진실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진실된 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높은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의심스러우며 이에 따라 결론 역시 진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생산한 회계자료가 투명성의 결여로 진실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한 재무관리나 회계학의 연구결과는 진실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 점을 간과한 채 한계점으로조차 언급하지 않고 있다.

둘째, 반증주의의 시각에서 보는 경영학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제한된 표본관찰로 모집단 전체를 추론하는 일반화의 문제다. 비록 통계학의 지식을 이용하여 표본관찰의 한계를 정당화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예외적인 관찰의 처리문제는 통계학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경영학 연구의 몫

이다. 반증주의의 주장대로 학문의 발전에는 반증의 사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입증결과가 불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외사항을 데이터 집합에서 제외하거나 예외적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나 언급이 없이 지나치는 것은 경영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용어의 혼동과 개념의 측정에 관련된 문제점이다. 특정 용어의 불일치—특히 외국 용어의 번역으로 인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혼동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언어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특히 비판하는 것으로 실령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하여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인식되거나 비록 동일하게 인식되었다 하여도 특정 개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측정하여 테스트하기가 어렵다 (Caldwell, 1982, p.48). 비근한 예로, 회계학의 실증이론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정치비용'을 표현하는 대리변수(proxy)로 사용되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당기보다 장래기간에 이익을 이연시켜 보고하려는 회계절차를 선택한다'는 가설이 설정된다 (Watts & Zimmerman, 1986, p.235). 그러나 비록 '기업의 규모'와 '정치적 비용'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는 존재할 수 있으나 각각의 개념은 한 개념이 다른 개념으로 대체될 수 없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업의 규모'에 관한 연구 결과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다.

경영학 연구와 관련된 언어의 유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통계기법이 회귀분석 등 상관관계의 방법론이나, 가설과 결론의 문장은

3) Hume이나 Mill에 의해 정립된 인과관계의 개념에 의하면 원인과 결과의 인접성(contiguity), 원인이 결과보다 시간적으로 우선, 원인과 결과는 관련이 있어야 하는 점, 결과는 원인이 되는 변수들로부터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만족해야 하나(채서일, 1992, pp.51-64) 경영학과 같은 사회과학에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인과관계로 표현되는 경우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관찰을 모아 귀납적 원리에 의해 이론을 정립시켰다면 이 단계까지는 여전히 상관관계에 의해 입증된 이론이다. 비록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의 방법론³⁾을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역적인 추측을 통한 예측은 사실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연구 환경이 철저하게 통제된 실험실에서 자연과학연구라 할지라도 예측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연구설계에 의한 경영학 연구들이 단언적 예측을 내리는 행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경영학 연구자 공동체의 세계관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구체적으로 관찰(혹은 자료)은 가치중립적 혹은 이론중립적이므로 개인 연구자나 경영학 연구자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세계관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에 관련된 문제다. 초기 논리실증주의의 이와 같은 주장은 여러 가지 모순으로 인해 지금은 관찰의 이론의존성이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차머스 1985, p.63), 연구자 개인 및 공동체의 세계관이 이론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많은 경영학 연구는 기존 논리실증주의의 주장, 즉, 민족, 문화, 역사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 존재하며 자료는 가치중립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외국이론의 무분별한 도입 및 적용이 시도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집단의 엘리트 의식과 연구결과가 전문학술지에 게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워 게임에 관한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즉, 논리실증주의

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논문게재기준은 합리적 논증이나 객관적 증거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와는 관계없이 '어떤 이론이나 테스트가 내가 속한 이해 집단에 힘을 배가시켜 주는가'의 권력주장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며(Foucault, 1980), 어떤 것이 연구비, 승진, 종신 재직권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제일 큰가를 중심으로 결정되기도 한다(비스, 1998, p.68). 이러한 현상은 연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특정 방법론만을 선호하게 하여 논리실증주의의 한계와 더불어 경영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경영학 연구를 위한 패러다임의 탐구

II장에서 논의된 과학철학의 결론은 특정한 연구 방법론이 다른 방법론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각 방법론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주장하는 관점에 따라 채택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지지하던 경영학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논리실증주의의 문제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속 논리실증주의의 방법론에 의존하던지, 아니면 기존 방법의 보완으로는 경영학 연구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소위 쿤이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든지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 토의된 바를 중심으로 각 연구방법론이 경영학 연구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논리실증주의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연구에서 상당 기간 그 세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논리실증주의의 문제점이 사소해서가 아니라 이를 대체할 마땅한 연구

방법이 패러다임 전이의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리실증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즉, 귀납적 논리전개의 모순점 및 사실의 물가치(value-free)성을 강조하는 속성 때문에 논리실증주의는 퇴행성 연구방법론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특히 논리실증주의는 과학의 진보라는 관점에서는 다른 방법론에 비해 취약점을 안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영학내의 논리실증주의 옹호자는 이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의 개발에 노력해야 하며, 비판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최소한 논리의 출발이 되는 관찰의 진실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결과의 해석에서도 이와 같은 한계점을 인식하여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반증주의는 논리실증주의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반증을 위해서는 이론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가설의 오류와 기초적인 가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의함에 틀림없다. 특히, 포퍼의 주장처럼 대담한 추측과 반증은 경영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먼저 대담한 추측⁴⁾이 적극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경영학 연구에서 대담한 가설이 연구주제로 제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인다. 그것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학술지에 게재될 확률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반증주의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 자연과학에서조차 반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려할 때 경영학 연구에서 반증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과학적 혁명을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한 쿤의 시각은 경영학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해하는 것은 경영학 역사의 연구에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접근방법과 달리 개인주의, 사회학, 역사, 공동체의 합의 등에 대한 강조는 경영학을 새로운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 합의에 의한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과학적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경영학 연구의 혁명가능성을 예견하는데 유용하다. 반면 정상과학에서는 정확성, 일관성, 단순성, 충분성 등의 기준에 의해 이론간의 비교가 가능하나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패러다임을 비교할 표준적인 방법론이 없다는 쿤 이론의 약점이 경영학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새로운 방법론이 사용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방법론일 것인가는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으며 다만 사후적으로나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 역시 경영학 연구가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한계점이다.

넷째, 지금까지 진행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들 검토하여 볼 때 방법론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anything goes)는 무정부적인 입장은 특정이론이나 방법상의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여 과학의 진보를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하며, 모든 논의를 개별적 차원으로 전락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영학 연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의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권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모더니즘이 주장하는 인간의 합리성

4) 여기서 대담한 추측이란 우리 시대의 배경지식으로 볼 때 그럴 듯하지 않은 주장을 담은 추측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당시 이 이론은 대담한 추측이었다(차머스 1985, p.103)

이나 과학의 확실성이 의심되는 현 상황에서 개인적인 체험, 문화의 차이, 주관적 인식 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경영학 연구의 내용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다. 연구방법에서도 천편일률적인 회귀분석의 통계기법에서 벗어나, 이야기하기(story-telling)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부분으로의 확대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가 타 분야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경영학 내부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Arrington & Francis, 1989; Cater and Jackson, 1987; Armstrong, 1994; Arnold, 1998)을 고려하면 포스트모더니즘 자체 및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경영학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3. 과학으로서의 경영학연구

지금까지의 논의, 특히 경영학 연구의 문제점 분석은 주로 과학철학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주로 자연과학을 대상으로 한 과학철학의 논의가 경영학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론을 설정하고 예측을 한다는 과학의 목적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연구방법론 차원에서 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채서일, 1992, p.53). 첫째, 자연과학은 주로 폐쇄된 실험실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며 사회과학은 주로 개방된 현장(field)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자연과학에서는 인과관계가 비교적 쉽게 정의되나 사회과학에서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외생변수로 인해 추론하기가 어렵다. 둘째,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과학의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주로 확률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셋째, 따라서 사회과학에서 인과관계를 논할 때에는 인과관계 자체보다 이러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 외에도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이나 테스트를 반복해서 수행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엄격한 실험을 위한 실험실의 통제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연과학이 요구하는 방법론을 경영학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 점, 즉 경영학 연구는 자연과학이 요구하는 수준의 실험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경영학 연구는 오류를 포함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자연과학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 특히 방법론적인 문제점은 경영학 연구에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즉, 논리실증주의를 따르므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외생변수를 철저하게 통제된 물리학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며, 사회과학의 특성상 그 연구방법은 확률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위안을 해 보지만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확률론에 의한 논리실증주의의 수정은 자연과학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Carnap(Caldwell, 1985, p.16에서 재인용)은 '통일된 과학'(unified science)을 내세워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는데 그에 의하면 방법이나 지식의 원천에서 보면 오직 한 과학만이 존재하며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이를 표현하는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Ayer (Caldwell, 1985, p.16에서 재인용)는 사회과학이 다루는 현상의 다양성과 측정방법 때문에 이론을 설정하는데 자연과학에 비해 덜 성공적일 수 있으나 이것은 실제적(practice)인 면에서이지 원칙적인 면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자연과학과 경영학이 자연현상과 기업현상이라는 학문의 연구대상이 다르며, 폐쇄된 실험실 혹은 개방된 현장 등 연구설계 특성에 따른 외생변수의 통제력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를 이론화하고 테스트하는 연구방법론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자연과학을 중심으로 논의한 과학철학의 논제는 대부분 경영학 연구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우리 나라에 경영학이 도입된 이래로 경영학 연구는 기업사회 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외에 걸친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경영학 연구가 추구했던 방향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는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한 국가의 장래가 그렇고 특정기업(폴린스와 포라스 1996), 특정학문, 개별연구자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정리하여 경영학 연구의 방향설정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영학 연구방법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논리실증주의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논리실증주의의 기본조건을 다시 한번 음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논리실증주의의 핵심은 입증의 정도(strength of confirmation)에 있음을 상기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검토과정이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관찰의 진실성이 그 이후 모든 논리과정의 전제임을 인식하여 진실된 관찰 수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는 데에 따르는 한계점을 지금의 관행보다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과정에서 발견되는 예외사항을 무심코 폐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예외사항이 연구설계 및 연구수행상의 미비에서 연유된 것이라면 그 원인을 밝혀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예외사항이 연구설계의 미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론의 미비에서 온 반증의 결과라면 이는 경영학 연구의 발전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론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비록 현 경영학 연구의 주 연구방법론이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한다 하여도 경영학 연구자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탐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료에 의한 실증적 연구가 아니면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풍토는 개선되어야 한다.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이러한 연구방법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임대하고 있다. 특히, 자연과학적 지식과 경험조차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및 학문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의 가치 판단과 인격적 개입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점(Polanyi, 1958)을 인정한다면, 사례연구, 이야기하기(story-telling) 등 질적(qualitative) 차원에서 연구방법이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앞에서 지적된 바를 보완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안은 실증연구 이외의 연구만을 다루는 별도의 전문학술지를 경영학회 차원에서 발간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과 Academy of Management Review가 구분되어 있어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다섯째, 연구대상 및 시각을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역

사를 살펴볼 때 기업의 성공여부와 정치구조와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하였다. 마찬가지로 언어, 문화, 역사, 사회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기업환경이 기업경영의 틀을 이미 상당부분 결정 지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모델에서 제외되므로 경영학 연구들이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경영학 내부에서조차 타 분야와의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학문의 편협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포퍼의 신탁학철학 및 포스트모더니즘에서 가장 우려한 점이기도 한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금까지의 경영학 연구가 주로 나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숲을 보는 연구도 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영학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때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역량을 집중하여 학문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세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으로서의 올바른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영안 (1996), **주체는 죽었는가: 현대철학의 포스트모던 경향**, 서울, 문예출판사.
- 권성국·조성표 (1997), "회계학 연구의 20년: 1977-1996," **회계학연구**, 22, 203-220.
- 노나카 이쿠지로 (1998), **지식경영**, 서울, 21세기 북스.
- 대비도우, W. 와 멀론, M. (1992), **가상기업**, 강자모 역, 서울, 세종서적.
- 드러커, P. (1993),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이재규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라우든, L. (1997), **포스트모던 과학전쟁**, 이범 역, 서울, 새물결.
- 마퀴드, M (1994), **글로벌 학습조직**, 한언경영연구 역, 서울, 한국언론자료간행회.
- 미국상무성 (1998), **전자상거래혁명**, 현대경제연구원 역, 서울, 21세기 북스.
- 밴드, W (1996), **기업혁신을 위한 10가지 새로운 아이디어**, 서울, 중앙일보사.
- 비스, G. (1998), **현대사상과 문화의 이해**, 오수미 역, 서울, 예영컴퓨터이전.
- 브래드리, 하우스만 과 노란 (1993), **미국 하이테크 산업의 세계화전략**, 김광수 역, 서울, 전자신문사.
- 에드빈슨, L 와 멀론, M (1998), **지적자본**, 황진우 역, 서울, 세종서적.
- 일본 인류와 에너지연구회 (1996), **지구환경과 인간**, 한국원자력 에너지 문화재단 역, 서울.
- 조인래, 박은진, 김유신, 이봉재, 신중섭 (1999), **현대 과학철학의 문제들**, 서울, 도서출판 아르케.
- 콜린스, J & 포라스, J (1996),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워튼 포럼 역, 서울, 김영사.
- 카노크, W. (1996), **21세기 쇼크**, 황태호·최기철 역, 서울, 경향신문사.
- 차머스, A. (1985), **현대의 과학철학**, 신일철·신중섭 역, 서울, 서광사.
- 채서일 (1992),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서울, 학현사.
- 토플러, A (1980), **미래의 충격**, 서울, 범우사.
- 템스콧, D. 와 캐스튼, A. (1996), **패러다임 시프트**, 이석주 역, 서울, 창현출판사.
- 후쿠야마, F. (1996), **트러스트**, 구승희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Armstrong, P. (1994), "The Influence of Michel Foucault on Accounting Research," *Critical Perspectives on Accounting*, 25-55.
- Argyris C., & D.A. Schon (1996), *Organizational Learning II: Theory, Method, and Practice*.

- MA, Addison-Wesley.
- Arnold, P.J.(1998), "The Limits of Postmodernism in Accounting History: The Decatur Experience,"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665-684.
- Arrington, C.E. & J.R.Francis (1989), "Letting the Chat Out of the Bag: Deconstruction, Privilege and Accounting Research,"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14, 1-28.
- Bagozzi, R.P. (1995), "Reflection on Relationship Marketing in Consumer Market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3, 273-285.
- Bloor, D. (1976), *Knowledge and Social Imager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Caldwell, B.J. (1982), *Beyond Positivism: Economic Methodology in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George Allen & Unwin.
- Carter, P. & N.Jackson (1987), "Management, Myth, and Metatheory—from Scarcity to Postscarcity,"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17, 64-89.
- Christensen, C. (1983), "The Methodology of Positive Accounting", *The Accounting Review*, 1-22.
- Derrida, J. (1978), *Writing and Difference*, Alan Bass (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ditorial (1987), "Overviews of Four Years of Submissions to The Accounting Review", *The Accounting Review*, 191-202.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 Other Writings* in Colin Gordon (ed.), New York, Pantheon Books.
- Hendriksen, E.S. and M.F. Breda (1992), *Accounting Theory*, Boston, Irwin.
- Kuhn, T.S. (1970),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ilien, G.L & A. Rangaswamy (1998), *Marketing Engineering*, Reading, Addison-Wesley.
- Mckenna, R. (1991), *Relationship Marketing: Successful Strategies for the Age of the Customer*, Addison-Wesley Published.
- Merton, R.K. (1973), *The Sociology of Science: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adler, D.A & M.L. Tushman (1990), "Beyond the Charismatic Leader: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hang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77-97.
- Polanyi, M. (195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Popper, K.R.(1968),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London, Hutchinson.
- Roll, R. (1977), "A Critique of the Asset Pricing Theory's Tes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29-176.
- Rosenau, P.M. (1992),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oulmin, S (1970), "Does the Distinction between Normal and Revolutionary Science Hold Water?" in I. Lacatos and A.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ts, R.L. & J.L.Zimmerman (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New Jersey, Prentice-Hall.

Search for Methodology and Paradigm of Management Research

Hochan Hwang*

Abstract

Since management was introduced to Korea, it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cademic research and business practices. However, as business environment change so fast, it has been required to review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rend of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By reviewing general tendency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current status and identity of management are discussed. Especially, problems of positivism and thoughts of postmodernism are discussed. In conclusion, the management research should tolerate various voices and try to cooperate other scientific disciplines. Other methodologies should be incorporated to get over the limitation of positivism and relevant research subjects should be developed by predicting change of business environments.

Key Words: Philosophy of science, Positivism, Paradigm shift, Postmodernism

* Assistant Professor Accounting,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jong University